보도자료

담당	국방비서관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생중계 시작 이후 실시간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7월 26일(수)

윤석열 대통령, 유가족과 함께 6 · 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7위)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

-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첫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 주관 -

-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실천-

-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6 · 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호국의 형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26, 수) 밤,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국군 유해 인수 : 총 6회, '12년, '16년, '18년 7월, '18년 9월, '20년, '21년
*대통령 주관 행사 : 총 4회, '12년, '18년 9월, '20년, '21년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

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 국빈급 예포발사, 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고,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년~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그리고 1996년~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입니다.

*6·25전쟁 당시 미군이 수습, 하와이 펀치볼묘지에 안장한 유해를 감식해 확인한 유해 3위
*’87년~’12년 미군이 단독 발굴, 하와이 DPAA에 보관중인 유해를 감식해 확인한 유해 1위
*’95년·’18년 북한이 미국으로 송환, DPAA에 보관중인 유해를 감식해 확인한 유해 2위
(故 최임락 일병 유해는 1995년 북한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함경남도 장진에서 발굴)
*’96년~’05년 미군·북한군 공동 발굴, DPAA에 보관중인 유해를 감식해 확인한 유해 1위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故 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습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 12. 12.)했습니다.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되어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 8. 1. ~ 9. 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 8. 14.)했습니다.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 최종호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했습니다. ‘호국의 형제’인 故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월 26일 06시(현지 시각 7월 25일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습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은 美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분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

고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故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세)님은 형님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추었습니다.

오늘 봉환식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가족 3명이 함께 했습니다. <끝>

유가족 명단 (3명)

사 진	성 명 (연령)	현 직	주요 학·경력
	최용 (79세)	유가족 대표 (故 최임락 일병 막냇동생)	· 27사단 18개월 복무, 의가사 전역 * 64. 08. 28 - 66. 3. 5(18개월) · 울주군 상북초등학교 졸업 · 젊은시절 직업 : 건축업 (현재, 전원생활)
	이복순 (79세)	유가족 대표 (故 최임락 일병 제수)	· 울주 상북면 출생, 울주 범서읍 거주 · 현재 직업 : 주부
	최호종 (49세)	해군상사 * 1함대 1전투단 13전대 136편대 추진기관장	· 故 최임락 일병 둘째 조카 · 울산 울주출생, 인하공전 졸 · 현재 강원 거주(미혼)

유가족 편지

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모질게 고생만 하시다 나라를 구한다고 군대에 들어가셨죠.

목숨 바쳐 주신 우리나라가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내요.

지금 형님은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형님! 이제 나라 걱정은 마시고, 우리 땅에서 편히 쉬시이소.

저도 형님을 찾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23. 7. 26.
동생 최 용